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1주일
제34권 1호(가해) 2013.12.1

[묵상]



겟세마니에서의 고뇌 중 잠든 제자들. 오늘 대림시기를 시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도록 합시다.

회개란?

① 첫째는 사고방식의 변화이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초점이 나 자신이었던 것을
하느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추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② 둘째는 가치기준의 변화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에 치중하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회개의 방식은 우선순위의 변화이다.

좋은 것은 내가 먼저,
나쁜 것은 네가 먼저 하는 우선순위를 바꾸자.
서로가 좋은 것을 양보할 줄 안다면
세상은 참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행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제단체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 양업회, 성모회, 자도회, 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제성 아가다 (생)최석원 안드레아, 이동협 안드레아
주 일 낮 미사	(연)최근석 마리아, 김성일 바오로, 신대진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이현호 요한, 유정복 베네딕도, 이명자 로사, 이용식 베드로, 낙태된 아기들, 홍문구 바오로, 홍승세, 심찬유 마리아, 송인식, 고준희 제임스, 돌아가신 레지오단원들 (생)정엘리스 클라라, 이운조 클라라, 엄영숙 마리아, 김재민 안드레아, 김앤디 안드레아, 구비안, 김기준 안드레아, 정우석 루카, 오명섭 미카엘 & 오창애 안나 가정, 토런스 북구역 가정들,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화답송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있노라.○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3,11-14ㄱ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 음 마태오(Matthew) 24.37-44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24	129	124
봉헌	256	264	268
성체	382	289	307
파견	127	124	123

올바른 성모신심

제3장 성모 공경을 드러내는 기도와 생활

3) 묵주기도

묵주기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이며, 실제로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이다. 이 기도의 형태가 50번 또는 150번의 성모송으로 구성된 것은 시편150편에서 유래하며 아일랜드의 수도원에서 시작되었다. 묵주기도가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은 독일의 카르투스안 수도자였던 프로이센의 도미니코(Dominicus, 1384-1460년)신부이다. 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150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성모송 사이사이에 묵상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도미니코 수도회 알라누스(Alanus, 1428-1478년) 수사가 묵주기도 형제회를 결성하여 이 기도를 전파시키면서, 모든 계층의 신자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150개의 묵상 조항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15개로 축소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도미니코수도회 창설자인 도미니코(Dominicus, + 1221년) 성인이 묵주기도의 창시자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다.

묵주기도는 반복하는 특성을 지닌 기도이며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도록 이끄는 기도이다. 요한 23세 교황은 묵주기도야말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고, 삶의 중요한 기본 요소들을 강화시켜 주며, 신자들의 기도와 생각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바오로 6세 교황은 교황 권고「마리아 공경」(1974년)에서 묵주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성경에 바탕을 둔 기도이다.

둘째, 구원 역사 안에서 하는 기도이다.

셋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다.

넷째, 묵상의 성격을 띠는 기도이다.

다섯째, 전례와 연관성이 있는 기도이다.

이와 유사하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서「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2002년)를 통하여 묵주기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며, ‘복음의 요약’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묵주기도는 분명히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그 소박한 구조 속에 모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마치 복음의 요약과 같습니다.” 아울러 묵주기도가 완전한 복음의 요약이 되기 위하여 ‘빛의 신비’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황님의 이러한 제안에 따라 한국 주교회의는 2002년 12월 ‘빛의 신비’ 다섯 가지 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1.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2.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3.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4.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5.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계속>

깨어 있어라!

12월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해서 보내자는 송년회, 그동안의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자는 망년회 자리가 빈번하지요. 신앙인들에게 12월은 무엇을 보내고 떨쳐버리기보다는, 누구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란 대체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름거리를 떨쳐버리려는 사람은 술에 취하기 십상이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신앙인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미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바쁘고 힘들다 보니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 뵙지 못하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전 4주간의 대림절 동안에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 '집중적인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깨어 준비할 때 2천 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도 태어나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때가 바로 진정한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하게' 주님을 만나지만, 저세상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만나게 될 것입니다.(1코린 13,12 참조)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이 최종적인 만남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만남의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하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온 생애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비롭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 한평생의 공로와 과실이 낱알이 드러날 것입니다. 공로가 많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지만, 과실이 더 많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집회서의 말씀대로 이런 심판의 순간

을 잊지 않을 때 현재의 삶에 좀 더 성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집회 7,36)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빛의 갑옷'을 입고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홍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제2독서) 누구나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주님과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잔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정의와 사랑의 주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 시기에,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전쟁이 완전히 사라져서 평화가 넘치는 잔치(제1독서),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됩니다.

주님을 뵙고, 그분의 천상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이 갈망의 힘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분께 희망을 두며, 그분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천상잔치에는 우리를 아끼는 수많은 친지들이 기다리고 있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우리를 애타게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잔치 초대장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

-거울, 바라보다,

원가를 가만 들여다 보면 그것 역시 나를 가만 들여다보다 군요. /지나는 길에 힐끗 쳐다보면 역시 나를 힐끗 쳐다보며 지나가고, /무심하게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 역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나를 노려봤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언제나 먼저는 나였다는 것을 뿌옇게 흐린 창을 바라보며 깨달습니다.

◆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대림 제1주일(가해)

오늘은 대림 제1주일,
대림시기가 시작되었
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
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대림(待臨)’은 ‘오시
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
벤투스(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천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례를 통하여
매년 되풀이함으로써,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기
념합니다. 교회는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가해’의 전
례주기를 따르며, 첫번째 대림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 성시간 : 12월5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성모신심 미사 : 12월7일(토) 오전 8시30분

◆ 성탄 합동 판공성사 : 12월11일(수)

- 참회예절 : 오후 7시 저녁미사 중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판
공일 전 미사전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례식 : 12월15일(주일) 낮미사중

◆ LA대교구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헌금

오늘 주일(12월1일 첫주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
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
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으로 적극 동참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 합동미사 봉사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부행사 각성당별 ‘노래자랑’ 경합에서 백삼위 본당이 1등!
지난 수개월동안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미사를
주관하기 위해 애써온 본당의 행사준비위원회와 성가대, 그
리고 여러 봉사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가 올까봐 조
마조마 했는데 하느님 사업이라 비마저 비껴갔네요.
은혜로운 행사가 되어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성탄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미사 시간
을 임시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12월 10일(화), 17일(화), 18일(수), 19일(목) 4일간의
저녁미사가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됩니다.

◆ 대림 특강

- 일시 : 대림 제1주일/제2주일(12월1일, 8일)
오후 1시, 성전
- 주제 : ‘신앙은 천하지대본야(天下之大本也)’
- 강사 : 오창근 베드로 본당 신부님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213)505-2941

◆ 본당 사목회 홍보분과 모임

- 일시 : 12월6일 오후 7시30분
- 연락처 : 이민상 사도요한 홍보분과장 ☎(213)709-4400

◆ 성탄맞이 대청소와 카펫클리닝

성탄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들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전교우 대청소 : 15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친교점심후
- 카펫클리닝 : 16일(월), 17일(화)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통해 알림(8일 게시)
- 문의 :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성탄절을 앞두고 성물부에 묵주팔찌 등 새로운 성물이 많
이 준비됐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을 형제자매들은 물론 친
지들에게 선물할 아이템이 많으니 한번쯤 둘러주세요. 축
성받은 성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
구입니다. * 문의 : 김춘자 막달레나 ☎(310)539-3377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1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라면 \$1)
* 주일학교 : 추수감사절연휴 수업없음
- 12월8일(주일) : 토런스 서 2반(북어국 \$3)
* 주일학교(11학년 카레라이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광자	김성택	김우용	김재영	김철민	성전헌금	강태홍	김우용	김철민	김충섭	김현숙	김호순
	김충섭	김현숙	김호순	남성철	노세미	박광자		남성철	노세미	박봉성	서성용	양영관	윤화경
	박기돈	박동수	박봉성	박종열	서성용	양영관		이경태	이귀란	이귀분	이민상	이병우	이인석
	오신재	윤화경	이경태	이귀란	이귀분	이민상		이형삼	임 순	정훈모	최진수	한창주	홍광선
	이병우	이인석	이형삼	임 순	임연조	장영진		황인종					
	정훈모	최진수	한창주	홍광선	황인종								
합계 : \$4,305							합계 : \$3,005						
주일미사 헌금 : \$2,933							감사헌금 : 김교복/김순희						
2차헌금(필리핀돕기) : \$1,621													

□ 주일학교 소식 □

◆ 추수감사절 연휴로 오늘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한국말 미사로 봉헌합니다.

◆ 중등부 지역사회 봉사

- 일시 : 12월7일(토) 오전 9시~오후 2시
(출발 오전 7시15분 성당 파킹랏)
- 내용 : 어려운 가정돕기(물품 포장 및 전달)
- 장소 : LA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문의 : 남 스텔라 중등부 주임 ☎(310)918-3324

◆ 주일학교 성탄 예술제

- 일시 : 12월14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학부모와 일반교우들, 사목위원, 단체장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주일학교 학생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보호봉사자 필수교육(Vitus Training)

- 일시 : 12월22일(주일) 오후 1시~3시, 강당
- 대상 : 성직자, 수도자, 주일학교/한국학교 교사, 자모회, 청소년관련 사목위원 및 모든 봉사자
- 강사 : 서정우 프란치스코 ☎ 310-408-9070

◆ 한인 가톨릭 청소년 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2014년 1월4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주제 : Lumen Fidei(The Light of Faith)
- 장소 : Servite 하이스쿨(1952 W. La Palma Av. Anaheim)
- 참가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25(점심포함) * 신청마감 : 12월15일(겨울방학전)
- 준비물 : 주일학교 행사 특별 티셔츠 제공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남가주 소식

◆ 남가주 M.E. 송년모임

- 일시 : 12월21일(토) 오후 6시
- 장소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 참가비 : 부부당 \$150(경품 포함)
- 연락처 : 본당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 병옥 올리아 ☎(310)780-9055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중

- 내용 :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
(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드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엄영희 베로니카 213-278-3279 12/14(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2/14(토) 오후 6시 홈타운부페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2/13(금) 오후 6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근식 미카엘 316-7608 12/22(주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윤화경 바오로 999-5808 12/14(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 안나 968-7600 12/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남구역 합동반모임 580-2912 12/13(금) 오후 7시 성당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정병옥 올리아 404-1607 12/16(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서창호 바오로 257-1607 12/14(토) 오후 6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384-3289 12/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김명 스텔라 482-9108 12/6(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12/13(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은미 가브리엘라 617-3568 12/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돌봐주시는 하느님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가끔 집을 보고 오시곤 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셨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쩔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단골로 가시는 점집은 독특하게 자신의 예견을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두며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시면 매일 같이 “너 오늘 물가에 가지 마라.”, “할머니가 닭고기 튀겨 줄 테니까 네발 달린 짐승 고기로 만든 소시지 같은 거 사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며, 점쟁이가 제시한 기한이 다 될 때까지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점쟁이가 한 말대로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 용만이가 물가에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허황된 소리를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 혼을 낼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 할머니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점쟁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걸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하면 바로 그날 수영장으로 달려갔고 네발 달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면 바로 햄버거를 사 먹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절대 문지방을 밟지 말아야 다음 시험을 잘 본다.”라는 말을 들은 날은 문지방에 누워서 한 시간을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잘 보려고 몇 날 밤을 새우며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겁을 하던 할머니께서 그 덕에 오히려 점쟁이가 말한 기간 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셨지요.

“할머니야말로 하느님이 혼내실거야. 점쟁이 말이나 믿고!”라고 하면 할머니는 “그래 난 하느님이 혼내지만, 넌 내가 혼내야겠다.”라고 하시며 저를 쫓아다니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두 달 동안 아무 일 없을 거잖아.”라고 하면 한편으론 안심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이런 것도 효도의 한 방편인가 싶기는 했지만, 아무튼 저의 그러한 행동 덕에 할머니께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고, 점집 출입을 현저히 줄이셨으니 할머니 신앙에 제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난 후에 할머니께서 성당에 다녀오시더니 “하느님이 이렇게 다 돌봐주실 텐데 내가 미쳤지. 그 점쟁이한테 갖다 준 돈만도 얼마야.”라고 하시더군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를 경영하는 일도 요즘같이 격변하는 시대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나 우려가 늘 가슴 한구석에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가지는 당연한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크고 작은 불안이 마음에 생겨 앞일이 궁금할 때 저는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제 앞날의 일을 다 알고 계시지요? 따로 여쭙 보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요?”

◆박용만 실마노 / (주)두산 회장

주님 뜻대로 하소서.

언제부터인가 음악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음악실에 들어가 풍금을 쳤고, 고등학교 때는 팝송에 심취해서 골방에 틀어박힌 채 기타를 치는가하면,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클래식 음악이 좋아 음악감상실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하고 기타만 친다고 어머니한테 걱정도 많이 들었지만, 음악은 훗날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직장생활과 음악생활을 병행하면서 전문적인 연주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음악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앙상블과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작은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음악이 좋아 음악 속에서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은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음악을 접하면서부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아름답지만 특별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작곡되고 주님을 찬미하는 데 쓰이는 성음악은, 세파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요 영혼의 위로자입니다.

혼자서 하는 음악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함께 만들어내는 합창이나 합주는 우리의 신앙공동체처럼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방해하지 않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내는 화음은 지상의 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모든 단원들이 부단히 연습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음악을 함께 만들어 냈을 때 느끼는 희열과 감동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아마추어 음악가들은 전문 연주자에 비해 그 기량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에 정성을 다해 연주하면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거나 시설 등에서 연주할 때 정성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두 아들도 영향을 받았는지 모두 전공 음악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프로 연주자가 된 아이들에게 저는 “테크니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깃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말해 줍니다. 저는 연주를 하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저희 음악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안이 되고 그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써 주소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아멘.”

◆김태식 토마스/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